

이낙연, 개헌론으로 대권 선언 “헌법에 생명·안전·주거권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하는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측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론으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다. 연초 여권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선언을 발표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 개헌 제안해”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 발언도 사과 “국민 뜻 충분히 못 헤아려...아픈 성찰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다”며 “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내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그

런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를 국민은 갈망한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

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재호 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면

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고향 이차 뒷밭인 호남에서 민심 잠기를 이어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담은 이번 광주 구상은 실질적인 대권 선언이라고 이 전 대표 측은 전했다. 서선욱기자

국민의힘 5·18추모제 참석 “유족회, 보수정당 첫 초청”

정운천·성일종의원 “호남동행 행보 결실 맺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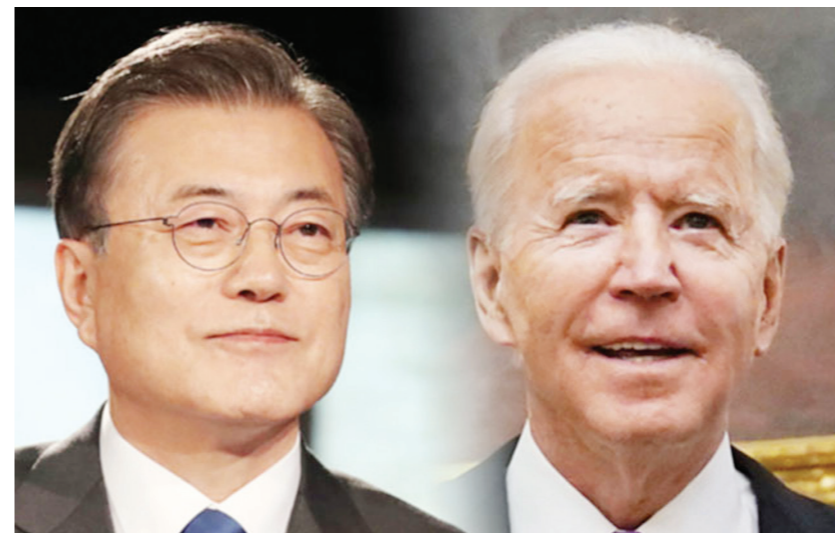
5·18유족회가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당 국민통합위원장은)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청대상은 정 의원(비례)과 성일종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는 초청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 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또 최근까지 국회 정부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과거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당도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새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文대통령, 정상외교 본격 시동...이번 주 美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21일 美 워싱턴서 대면 한미 정상회담...대북정책·쿼드 참여 등 동맹 현안 논의 이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동맹관계 복원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를 우선순위에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향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방안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인도·

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4일 복수의 한미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을 포함한 주요 신기술 등을 논의하는 쿼드 워킹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을 확대하고, 한국을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성과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먼저 공급 받고 추후에 값싼 ‘백신 스와프’ 체결을 논의해왔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과 만나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담 계기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